

슬픈 누나 이야기

가난한 집안에 長女(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初等學校(초등학교)만 卒業(졸업)하고
남의 집 食母(식모)로 팔려가

몇푼되지도 않은 돈을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縫製工場(봉제공장)에서
技術(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바리 부터 始作(시작)해서
잠도 못자면서 죽어라고
일만하던 누님이 계셨지요.

한창 맛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化粧品(화장품)하나
사쓰는 것도 아까워 안 사쓰고
돈을 버는대로 故郷(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쓰고
몸은 痲痺(마비)들어 가는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 셋을
大學(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워졌지요.

이 누나는 시집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男子(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감내하며
宿命(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異狀(이상)해서
藥局(약국)에서 藥(약)으로 버티다
結局(결국)은 쓰러져 同僚(동료)들이 업고
病院(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胃癌 末期(위암말기)라는 판정을 듣습니다.

그나마 多幸(다행)인 것은
手術(수술)을 해서 胃(위)를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美國(미국)에 살고있는
큰 동생에게 電話(전화)를 합니다.

"동생아,
내가 手術(수술)을 해야하는데
3,000만원 程度(정도) 든단다."

동생이 골프를 치다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3萬弗(만불)이 어딴어"
누나는 "알았다, 未安(미안)하다"
힘없이 電話(전화)를 끊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電話(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辨護士(변호사)입니다.

"동생아, 手術(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나?"

둘째가 말합니다
"누나 요즘 受任(수임)이 없어서
많이 힘드네" 하고
바로 電話(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막내 동생에게
電話(전화)를 했습니다.



事情(사정) 얘기를하자
막일을 하며 힘겹게 사는 동생이
婦人(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 왔습니다.

"누나, 집 保證金(보증금)을 빼왔어.
이걸로 手術(수술)합니다."

누나는 막내의 私情(사정)을
뻘히 알고 있기에
그냥 두 夫婦(부부)를
부둥켜안고 울기만합니다.

手術(수술)하기 前(전)날 밤,
保護者 寢臺(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든 울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던 누나는
自動車(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限(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울케는 꿈 속에서 조용히
微笑(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빈 寢臺(침대) 위에 놓여진 편지를 봅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내야, 울케야,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前(전)에
保險(보험)을 들어놓아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참 多幸(다행)이구나."

참으로 崎嶇(기구한)
運命(운명)입니다.

누나가 죽자 葬禮式(장례식)에도
參席(참석)하지 않은 다른 두 동생들은
누나의 死亡 保險金(사망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脅迫(협박)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法的(법적)인
모든것을(동원)하겠다."
두 兄嫂(형수)들과 함께 擄(육)을 하며 막내 부부에게
威脅(위협)을 加(가)합니다.
結局(결국)은 法廷(법정)다툼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그냥
줘버릴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兄(형)으로 부터
지키고싶었던 막내는
結局(결국)은 訴訟(소송)을
始作(시작)합니다.

그 消息(소식)을 들은
親舊(친구)가 辯論(변론)을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個月(개월)의 訴訟(소송)끝에
判決(판결)을 받습니다.

判事(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判決文(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文字(문자)를 읽어주자두 兄(형)들은 두 말 하지않고 밖으로 나
갑니다.

삶이 그렇더군요.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궁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비칠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
납니다.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짐승이라도 잘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간다싶으면
외면해버리는게 인심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그 누님은
聖子(者)(성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살아 있을 때 ...

孝(효)를 다하고
義(의)를 다하고
禮(예)를 다하고
精誠(정성)을 다하고

어려울때 성심으로
대하는 참된 우정과
사랑을 베풀고 나눌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60~70年代(년대)
産業化(산업화)를 이끌던 우리의 누이들,
兄(형)님들 □□□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밀거름이되어주신 父母(부모)님
世代(세대)들께 □□□

함부로 "곤대"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理由(이유) 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 극도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눈물겨운이야기입니다.

PRICE TO SELL

ONLY \$150,000

- AFFORDABLE 2-bedroom condo in an EXCELLENT LOCATION in Windsor Park!
- TWO BEDROOMS
- INCLUDES TWO oversized balconies - North & South -
- Excellent floor plan includes a large living room, a pass-through kitchen with an adjacent eating nook, and a large storage room.
- Assigned parking with plug-in.
- Close to chinook center, and easy access to downtown.
- Age restriction is 18+.

CELL: 403-870-8704 / B: 403-775-6950



COLDWELL BANKER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렌트를 구합니다.

- 면 적 : 1) 856 sqft, 2) 1,050 sqft
- 업 종 :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 문 의 :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

